



2020년 신년 메시지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이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행복으로 가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행복이 아닌 것을 참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릇된 길로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이 올라가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삶이란 겸손한 자세로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고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까지도 버려야 행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른 이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공존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 바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세상은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큰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영수경



### 강일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76

강일동성당은 2010년 2월 모본당인 고덕동성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강일동성당은 1개월간의 가건물 건축을 통해 새로이 마련한 임시 성전에서 2010년 4월 주님 부활 대축일에 본당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12년 5월에는 본당의 첫 견진성사가 거행되고, 121명의 신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주요 공사를 기점으로 하여, 본당 공동체의 노력으로 긴 시간 준비 끝에 2017년 11월 새 성전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